

## 6차시. 사고법의 변화가 미래예측의 시작이다.

### 01. 미래예측은 퍼즐 맞추기이다.

- ▶ 미래예측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다. 퍼즐게임을 할 때 궁금해하는 완성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춰야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조각들을 많이 맞추냐에 따라서 완성되는 세상의 모형은 달라진다.**
- ▶ 퍼즐을 맞추는 때 색깔 별로 패턴을 구분한 후 맞춰 나가듯이 **세상도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사회, 경제, 기술, 정치, 환경, 인구 등이라고 한다면 각 분야의 패턴을 읽어내고 **각각의 패턴 정보 조각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 ▶ 어느 한 분야의 정보 조각만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정보 조각들을 업데이트해 맞춰 나가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

### 02. 나보다 똑똑한 우리, 집단지성

- ▶ **집단지성(集團知性, 영어: 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이다. 쉽게 말해서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 소수의 우수한 개체나 전문가의 능력보다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의 통합된 지성이 올바른 결론에 가깝다는 것이다.
- ▶ 집단지성을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집단지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원들 스스로 올바른 의사소통과 회의 운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 개인의 집단지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만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간접경험을 늘리고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SNS가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기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학자와 같은 미래 예측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사고 방법일 것이다.

### 03. 좋은 미래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 ▶ **질문하지 않는 자는 상상할 수 없으며, 상상력 또한 질문 없이는 향상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위기와 기회를 상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질문을 하되 그저 그런 질문, 가능성이 높은 질문,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만 한다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변수나 돌발적인 미래 시나리오에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에 대한 질문, 업무에 대한 질문, 개인에 대한 질문 등 먼저 질문하는 자가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먼저 원하는 미래, 더 나은 미래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